

특별기획

부안군,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부안군은 16일 오전 6시 전 직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실시됐다.

이날 훈련은 실전위주의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대형재난 발생시 긴급구조 관련 기관·단체의 협조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실시된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훈련 실시에 따라 전 직원 비상소집 훈련에 이어 이날 오후 2시 부안을 일원에서 민방위 대피훈련과 교통통제 훈련을 했다.

17일에는 풍수해 재난대비 훈련을 19일에는 부안스포츠파크에서 지진에 의한 다중이용시설 붕괴 및 대형화재 현장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20일에는 불시 메시지 훈련을 한다.

19일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 붕괴 및 대형화재 훈련은 30개 기관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종합 훈련으로 리더라 규모 6.0 이상의 강진 발생으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설정해 부안군과 부안소방서, 부안경찰서, 고회대, 한국전력공사 등 3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종합대응 훈련을 진행한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복지 부정수급 예방 회의

김제시는 복지재정 효율화와 더불어 내실있는 복지재정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근절 추진단이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활동사항으로는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홍보와 관련 기관 집합교육을 23개소, 89명에게 실시하였고, 보조금 수시점검으로 변동자료 즉각 반영 및 사업담당자들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련 사업담당자들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3일 사업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절추진단원 뿐만 아니라 각 복지사업 담당자 및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들 40여명이 참석하여 복지 부정수급 온라인 신청 과정을 직접 시연하고, 수시변동자료에 대한 즉시 반영 처리, 사회적 일자리 대상자 선정시 수급자 여부 확인 철저 등 협조사항을 전달하였다. 또한 부정수급 예방과 환수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농기센터, 도청토요장터 참가

김제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4일 전북도청토요장터에 참가하여 관내 우수농·특산물 홍보 판매하였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 부안공동으로 응모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모사업(직거래 장터) 평가결과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5월부터 11월까지 (매월 격주 토요일) 전북도의회 청사 광장에서 "전북도청로컬푸드 토요장터"로 개최되며 향후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될 예정이다.

도내 14개 시·군 56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관내업체로는 오성제과, 금싸락농물지가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폭넓은 호응을 받았다.

최고의 미질을 자랑하는 우리시 쌀로 만들어진 농물지와 쌀 가공식품 시식코너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호응을 얻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노인여성회관 수강생 모집

부안군 노인여성회관 2016년 제2기 생활문화교실 수강생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6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생활문화교실은 요리·책 놀이·퀼트·시주명리학 등 자격증 취득과정과 하모니카·우쿨렐레·노래교실·중국어회화 등 취미·취업교실, 한글교실·컴퓨터기초반 등 계몽교육, 에어로빅·댄스스포츠·요가 등 건강교육으로 진행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생기 시장은 "공동체 페스티벌과 청춘 골목파티가 시민과 공동체의 상생·화합 한마당의 장이자 정읍지역의 전 세대가 재능과 끼를 나누는 장이 되고 오감민족의 추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 공동체 페스티벌 개최

'청년들과 함께 골목 파티' 21~22일 수성동 SC제일은행 골목일원에서

정읍지역 공동체들과 청년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페스티벌' & '청춘 골목파티'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수성동 SC제일은행 골목일원에서 개최된다.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시공동체협의회와 공동체활성화센터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정읍시민청안대회를 통해 발굴된 지역공동체들과 청년문화모임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 가는 축제이다.

행사는 지역공동체 50여개 팀과 함께 3천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할 예정이고 각종 이벤트와 체험활동, 지역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 마을농산물 판매, 공동체 작품 전시회 등

다채로운 체험과 볼거리와 먹거리로 채워질 전망이다.

특히 (옛) 정촌식당에서 열리는 '청춘 골목파티'에서는 푸드파티와 청춘연극, 슈퍼스타 J선발대회를 비롯 다양한 게임부스와 수상한 사진관 운영 등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생기 시장은 "공동체 페스티벌과 청춘 골목파티가 시민과 공동체의 상생·화합 한마당의 장이자 정읍지역의 전 세대가 재능과 끼를 나누는 장이 되고 오감민족의 추

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마을민들기사업 일환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정읍시 민청안대회를 통해 264개의 공동체를 발굴, 단계별 지원전략에 따라 열매단체 19개와 즐가단체 35개, 뿌리단체 16개 팀을 육성해왔고 현재 이들 공동체 모두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혁신적인 마을민들기와 공동체 육성 모범사례가 전국적으로 소개되면서 정부 부처와 전국 자자체들의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회장단 22명과 간담회... 발전 방향 진단·모색

김제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민관협력의 정책을 이끌어 내려는 부단한 노력과 몸집이 끊이지 않고 시도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제시 양혜안 여성가족과장은 16일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단 22명과 함께 마추한 자리에서 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는 여성관련 정책을 돌아보도록 김제시 여성친화정책의 방향을 진단하고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도 김제시는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여성친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평등 안전 돌봄 건강 등 4대 분야 8개 영역 51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다.

눈에 띄는 주요 정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매월 시행하고 있는 시민 1일 명예실과 장제를 다수의 여성이 참여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주민참여 예산제와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 확대 등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의 안전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원 등에 비상벨 설치도 추진중이다.

이와같은 김제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은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추진부서인 여성가족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통해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생명력있는 정책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실전 방불 민방공 대피훈련

긴급구조·화재진압 등

정읍시는 16일 오후 2시 제401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시와 8088부대 4대대, 정읍경찰서, 정읍소방서, 정읍교육청,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여성민방위대 등 주요기관과 사회단체 임직원 430여명이 훈련요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도민체전 개회식이 열리는 정읍시종합경기장이 북반 미사일 공격을 받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시설물 파괴, 화재 등의 긴급사태 발생을 설정하고 실시했다.

훈련에서는 긴급구조·화재진압·복구를 위한 민방위차와 경찰차, 구급차, 펌프차, 구조차, 굴삭차, 군 병력 수송차 등 긴급 자동차 15대를 현장에 급파하는 비상차로 확보훈련이 전개됐고, 군경 합동으로 전시 교통통제소를 설치·운영했다.

이날 훈련은 긴급 자동차가 한 곳에 모여 시가지 페어리드를 펼치는 기존 훈련 방식에서 벗어나 긴급 자동차 출동기관에서 민방공 경보사이렌을 출발신호로 사고현장에 직접 출동하는 실전적 훈련으로 전환, 이동시간을 대폭 줄였다.

특히 이날 종합경기장 훈련 현장에는 지휘본부와 설치됐고, 안심복 부시장이 직접 참요원으로 안전교육 실시하고 훈련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의 현장방문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 주요 지점에서 수신호 교통통제 자원봉사를 실시한 해병전우회정읍시지회(회장 김혁천)와 모범운전자회정읍시연합회(회장 안병덕), 교통경찰, 현장지휘본부 운영 및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활동을 펼친 정읍시여성민방위대(대장 유효덕)와 공무원들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황해연 안전개발국장은 "김제는 새만금 2호 방조제를 확보함에 따라 바다로 나가는 길이 열린 만큼 이제 새만금시대 김제의 새역사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제시 안전개발국, 새만금 현장방문

대규모 사업 비전 공유

김제시는 16일 황해연 안전개발국장을 비롯한 안전개발국 산하 전직원이 새만금 내부개발 현장을 찾아 대규모 사업에 대한 넓어 사업내용을 이해하는 등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새만금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새만금 내부개발 현장 방문은 새만금수목원, 대규모 농어업회사 등이 조성되어 첨단 수출농업의 전진기지가 될 농업용지 4.56공구를 방문하고 김제 바닷길의 시작인 심포마리나항 및 만경7공구 방수제를 거쳐 새만금내부개발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동서2축 간

선도로 사업현장 등을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황해연 안전개발국장은 "김제는 새만금 2호 방조제를 확보함에 따라 바다로 나가는 길이 열린 만큼 이제 새만금시대 김제의 새역사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드넓은 바다위에 위용 드러낸 새만금의 주요 내부개발 현장을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방문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이해와 업무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첨단 기술력으로 이뤄낸 새만금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몸으로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and Gangsanmyeongju products. Includ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promotional text in Korean.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also lists various gift set prices and options.